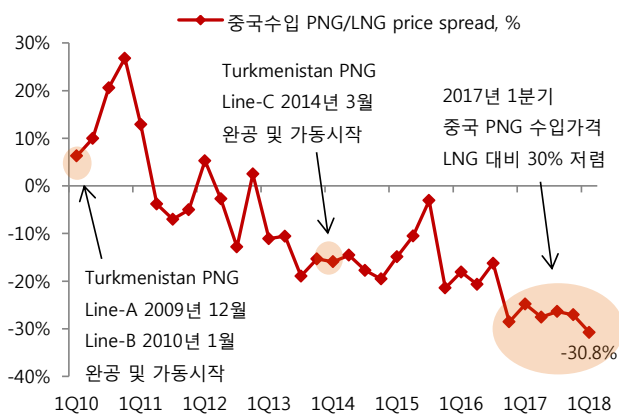


## 미중 LNG 무역분쟁에서 우위는 중국

- ▶ 중국이 가스시대를 이어가는 만큼 미국 우위에 대한 분석 많지만, 중국은 이미 저렴한 PNG를 대규모 수입하는 상황임. 게다가 러시아 PNG 라인 93%완공 / 내년부터 수입 시작됨. LNG 에서 만큼은 中 우위 판단

### 누차 확인되지만 중국 PNG 수입가격 LNG 대비 크게 저렴



자료 : KITA, SK증권

주: 4월 이후 자료는 현지 사정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

### 대규모 러 PNG "Power of Siberia" 93% 완공 / 내년 수입

## Russia's Huge Natural Gas Pipeline To China Nearly Complete

Gazprom's Power of Siberia natural gas pipeline from Russia to China is 93 percent complete, the Russian gas giant said in an update on its major projects. A total of 2,010 kilometers (1,249 miles) of pipes are laid for the Power of Siberia gas pipeline between Yakutia and the Russian-Chinese border, or on 93 percent of the route's length, Gazprom said in a statement. The natural gas pipeline is expected to start sending gas to China at the end of 2019 and its completion is among Gazprom's top priorities. (하락)

자료 : OilPrice(2018년 9월 6일), SK증권

- 미중무역분쟁이 계속해서 시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업계에서 최대 화두는 역시 미국산 LNG 수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지요. 이미 중국은 25%의 관세부과를 명한 바 있습니다
- 이어서 지난 8월 13일 Bloomberg는 중국 국영석유기업 Petrochina가 추가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지요
- 다만 일각에서는 가스시대 진입을 선포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산 LNG를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만큼, 관세부과를 실행할 수 있을지 원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우위에 있는 건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사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계속 간과되어 혼란이 지속됩니다. 바로 중국의 메인 가스수급계획인 파이프라인가스, 즉 "PNG"입니다

- 일단 "PNG는 비싸다"라는 세간의 억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PNG 수입단가는 올 1Q까지도 LNG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현재 수입의 메인은 세계 가스 매장량 4위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 결국 이들로서는 PNG의 가격 매력에 계속해서 확인되는 만큼 이 쪽으로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 게다가 현재 투르크 라인을 뛰어넘는 38bcm의 대규모 러시아 수입라인 "Power of Siberia"가 지난 6일 93%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Gazprom(러 국영가스회사)으로부터 보도되었습니다
- 내년 초부터 가동이 시작되고 연말이면 본격수입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2017년 기준 미국 LNG 수입량은 고작 2bcm입니다
- 이렇게 보면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겁낼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또한 2020년 이후 러시아 Power of Siberia 2와 투르크 Line-D 완공계획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